

<宗訓>

忠孝·德禮·勤謹·恭儉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우애하고 덕을 닦고 예의를 익혀 남을 존경하며 부지런하고 공경한 마음으로 성실하고 검소한 삶을 살자이다.

# 清州韓氏報

發行人 韓甲洙  
編輯人兼 韓東元  
主 幹  
印刷人 韓範東  
한영인쇄사 041-563-7474

(우: 110-719) 서울시 종로구 내수동 167 세종로 대우빌딩 복합동 602호

홈페이지 : 청주한씨 중앙종친회(www.cheongjuhan.net)

☎ 720-6370~1 FAX : 720-9215

##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 9월 중순 현재 5,800여명 수단 신청 종파·지역종친회에서 참여 분위기 확산

### 편찬팀, 홍보 위한 순방 계속



甲洙회장이 편찬팀 임원들과 종사를 논의하고 있다.

중앙종친회(회장 甲洙)가 최대현안으로 추진중인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편찬사업은, 7월의 한발(한발)과 35도를 오르내리며 계속된 폭

염(暴炎)에 겹친 8월 하순의 태풍 피해 등의 불리한 여건속에서도 일가들의 수단신청이 꾸준히 이어져 9월 14일 현재 5,800여명의 수단이 접수되

었으며, 각 종파와 광역시·도종친회에서 집회를 통한 분위기 조성도 확산되고 있어 9월 하순부터는 각 종파에서 소문중별로, 또는 개인가족 단위로 수단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9월 12일 청주시내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충북종친회(회장 章堉) 임시총회에서는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甲洙중앙회장과 駿錫편찬소위원장 등 편찬팀의 홍보에 모두가 긍정적인 반응으로 화답, 청주한씨의 본향(本郷)다운 면모와 긍지를 보여주었다. ▶관련기사 2·3·8면

이어 14일 駿錫편찬소위원장을 공석중인 회장으로 선출한 서울시종친회 임시총회에서도 70여명의 참석 대의원들이 수단 신청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홍보도 적극 돕겠다는 뜻을 보였으며, 이에 앞서 12일에 열린 서원군파 중종의 친목단체인 서정회 모임에서는 吉洙회장이 서원군파의 참여문

제로 일부 혼선이 있는데 대해 “분명히 말 하건데 우리는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편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잘못된 곳을 바로잡고 가짜는 가려내서 참된 족보를 만드는데 협조하고자 한 일이 있었으니 오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개월동안 각 종파문종과 지역종친회를 순방,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편찬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하면서 수단신청을 독려해온 편찬팀 임원들(駿錫편찬소위원장, 基虎도유사, 중앙회 백춘, 成龍, 星燮부회장)은 순방일정을 계속, 9월 15일에 경기도여주에서 열리는 경기도종친회(회장 光傳) 운영위원회 모임에, 9월 18일에는 광주광역시종친회(회장 昌華) 모임에, 9월 20일에는 의정부에 있는 청원위파(회장 相莢) 모임에, 9월 21일에는 대구·경북종친회(회장 燮燮) 모임에 차례로 참석,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전폭적인 호응을 얻었다.

## 편찬일정 및 수단금

### ▲편찬일정

- ① 수단 접수기간 : 2012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6개월간 입니다.
- ② 입력 및 개통 :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말까지 2개월간 입니다.
- ③ 2013년 상반기 중 완결된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를 근거로 종파 또는 개인의 주문을 받아 한글과 한문이 병기된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 전질(全帙) 또는 파보(派譜)를 보책(譜冊)으로 발간합니다.

### ▲수단금

- ① 수단 비용은 1인당 12,000원 (부부는 1인으로 간주)이며, 기혼자, 미혼자, 출가녀, 신규 입보자, 사망자, 내용 수정 등은 수단금을 납부해야만 족보에 등재됩니다.
- ② 1건 기준 50명 이상 단체로 접수할 경우 30%를 할인하여 문중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 ③ 서원군파 및 문간공파의 CD파보 입보자의 수단금은 추가비용부담을 감안하여 3분의 2를 할인하여 4,000원으로 한다.

### ▲사진 등재비

사진은 1매당 12,000원 입니다. 사진은 개인사진, 가족사진 표창장 사진, 묘소, 묘비, 묘소약도 사진 등을 등재할 수 있으며, 수단신청시 함께 하면 됩니다.

###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보책 예약

「7교청주한씨대동족보」전질 또는 파보를 보책으로 원하는 일가는 수단 신청시 1질당 5만원을 예약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보책가격은 주문 수량 등에 따라 결정되는대로 추후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자와 한글을 병기하는 과중한 번역비 때문에 27세 이후 수단금 부담 불가피합니다”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편찬팀은, 6교대동족보에 올라있는 일가들은 전부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에 수단금 없이 올려야 되지 않는다는 일부 일가들의 주장에 대해 “한자(漢字)만으로 기재된 6교대동족보를 그대로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한글로 번역해서 한자와 한글을 병기(併記)하기 때문에 번역비용이 많이 들어 27세 이후에 대해서는 수단금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 이해 해주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 仲秋佳節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 甲洙회장, “본향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 章燾회장, “후손에게 승계할 책임있다”

충청북도총친회(회장 章燾)는 지난 9월 12일 오전 11시 청주시내 길성이 식당에서 150여명의 일가들과 중앙회에서 甲洙회장 및 駿錫「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소위원장, 백춘, 成龍, 星燮부회장 등「인터넷대동족보」편찬팀 임원들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의 충실화를 위한 수단신청 등 편찬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甲洙회장과 駿錫 편찬소위원장, 백춘, 星燮부회장 등 편찬팀 임원들의 홍보 발언에 이어 인터넷족보 제작회사인 뿌리미디어 사장 相億일가가 스크린을 통해 한글과 한자가 병기되는 「한글인터넷대동족보」의 시대조류에 따른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일가들은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章燾회장은 회의 벽두 인사말을 통해 “자손으로서 조상을 숭배하고, 가계(家系)를 계승하고, 혈족의 단결을 도모하고, 동족집단의 본질과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족

보에 등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는 청주한문의 귀중한 문화재로서 우리의 세대가 완결하여 후손들에게 승계해 주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가장 중요한 종사(宗事)이니 적극 참여하자”고 호소했다.

甲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충북은 시조께서 탄생하시고 경륜을 펼친 청주한씨의 본향(本鄉)인데 오늘의 이 분향다운 분위기에 가슴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하고 “한글과 한자가 병기된「인터넷대동족보」는 모든 일상사(日常事)가「인터넷」으로 처리되고 있는 오늘날의 추세에 따라 앞으로의 젊은 한글세대 후손들에게는 필수적인 기록문화 유산임으로 명문의 족보



章燾 회장



충청북도 총친회 임시총회

에 올라야 명문의 후손이 된다는 자긍심을 갖고 모든 일가들이 빠짐없이 수단을 신청하여 국내 280여 성씨 중에서 으뜸가는 가장 훌륭한 「한글인터넷대동족보」를 만들도록 청주한문의 분향인 충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甲洙회장은 이어 “이 편찬사업이

내년초까지 완결되면 이어 내년 추석에 맞춰 보책(譜冊)도 제작하여 반질(頒帙)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이 완결된 후에는 현재의 청한장학기금 24억원을 35억원으로 확충하기 위해 11억원의 장학기금 모금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인터넷 홍보 경기도총친회, 다음 검색창 등에 올려

경기도총친회(회장 光傳)는 중앙회의 「인터넷족보」구축사업을 홍보하고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 다음(daum.net)등 「인터넷」검색창에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의 편찬 재개 취지, 수단 신청방법, 수단용지 기재 요령, 족보 신청시 업무처리 순서 등 상세한 홍보내용을 올려 모든 일가들, 특히 청장년 후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의 필요성과

수단신청 절차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총친회에 의하면, 다음(daum.net)등 인터넷 검색창에서 ‘족보’, ‘청주한씨’, ‘경기도총친회’, 등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한 다음 화면 왼쪽에 있는 ‘뉴스 더보기’를 클릭하면 청주한씨의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에 관한 홍보내용과 함께 경기도총친회의 행사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 1년에 2만원만 보내 주시면 ‘종보’는 독립채산이 됩니다

종보(宗報) 청주한씨보는 우리 100만 일가들의 소식지로 모든 일가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매체(媒體)입니다. 1년에 단 한번 2만원만 보내주시면 ‘종보’는 중앙총친회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채산으로 제작될 수 있으니 각 지역 각 종파의 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가분들을 독려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청주한씨보」는 한씨일가들의 갖가지 정보를 전하는 소식지입니다. 따라서 많은 정보가 게재될수록 유익한 좋은 소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각종파와 각 지역총친회의 행사, 임원교체 등 인사동정, 한씨에 얽힌 정보, 일가들의 선행과 효행 등에 관한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기사에는 관련인사들의 이름, 행사일과 장소, 행사내용 및 동정(動靜)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관련 사진도 함께 행사가 끝나는 대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보 편집실>

## 알림

1. 시조탄생유지 淸韓閣은, 주말(週末)에는 삼문(三門)이 열려있으나 주중(週中)에는 내부 시설물의 보안상 관계로 잠겨져 있습니다.
2. 따라서 淸韓閣을 주중(週中)에 참배, 참관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전날 저녁 때나 당일 이른 아침 (043-742-4982)로 현지 관리인 김승수씨에게 연락을 취해야 삼문을 열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한씨중앙총친회

## 종보 연말까지 매월 발행

중앙총친회는 격월로 홀수달에만 8면으로 발행해오던 종보「청주한씨보」를 그대로 지속하면서 오는 연말까지 잠정적으로 짝수달(6·8·10·12월)에도 4면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짝수달에 4면으로 발행되는 종보는, 주로 한글과 한문을 병기한 「7교인터넷대동족보」의 완결을 차질없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홍보강화에 중점을 두고 제작될 것입니다.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중앙총친회 계좌번호

- ◆ 청주한씨중앙총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41 (회비, 헌성금, 종보비)
- ◆ 청주한씨중앙총친회 국민은행 009901-04-016854 (족보 수단금)
- ◆ (재)청한장학회 국민은행 009-25-0015-377 (장학기금)

## 시조탄생지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 계좌번호

- ◆ 국민은행: 352202-04-033585 / 예금주: 한양명

# 서울시종친회장에 駿錫문간공회장 선출

## 감사에 基滉·栢洛일가, 상임이사에 喆洙일가 인터넷 족보 수단 신청에 적극 참여키로



서울시종친회는 駿錫 신임회장 선출로 4년만에 정상화 됐다.

서울시종친회는 지난 9월 14일 오후 5시 중앙회 회의실에서 甲洙중앙회장과 70여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열고 공석중인 후임회장에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편찬소위원장인 駿錫문간공파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중앙회 백준부회장이 임시의장을 맡아 진행된 임원선거에서는, 송조정 신이 투철하고 중요종사에도 적극적

으로 참여하고있는 駿錫문간공파회장을 후임회장으로 추천한다는 栢永영흥공파회장의 제의를 만장일치 박수로 받아들였다.

감사에는 基滉 전 경남종친회장과 栢洛전 동작구종친회장을, 상임이사에는 喆洙관악구종친회장을 각각 선임하고 그밖의 임원 선임은 신임회장에 맡겼다. 이로써 지난 수년간 정체상태에 빠져있던 서울시종친회



駿錫 신임회장

駿錫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을 시발로 서울시종친회가 재건되고 발전하는 중추적이고 역동적인 지역종친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특히 수도 서울시 종친회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종친간의 친목도모, 상부상조, 화합단결로 삼한갑족의 후예답게 승화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현재 25개구 중 종친회 조직이 없는 12개구의 종친회 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甲洙중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나라수도 서울의 종친회 회장이 오랫동안 공석으로 있으면서 유명무실했던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개탄하고 “송조정신이 투철한 駿

錫문간공파회장을 새 회장으로 모셨으니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명예에 걸맞게 가장 중추적인 위치에서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서울시종친회는 1954년 7월에 결성된 후 1970년부터 눈피 한갑수박사가 회장으로 재임하다가 1992년부터 2003년까지 당시 한일스텐레스(주) 회장이었던 한현수회장이 이어받으면서 조직이 전무했던 25개구 중 22개구 종친회를 결성, 전성기를 이루었다.

2003년 현수회장이 중앙회장에 취임하면서 한상서 구로구종친회장이 취임했으나 병환으로 2009년에 사임, 지난 3년동안 회장이 없는 공백상태를 유지해왔다. 결성되었던 22개구 중 9개구는 유명무실화 되었으며 현재 조직되어있는 13개구는 다음과 같다. (괄호안은 회장)

- ▲동작구(우인) ▲구로구(명석) ▲관악구(철수) ▲강북·도봉구(상열) ▲서초구(일섭) ▲중랑구(봉조) ▲마포구(희수) ▲강동구(동술) ▲동대문(주상) ▲영등포구(광수) ▲강서구(평석) ▲서대문구(재서) ▲은평구(기영) (이상 무순)

### 甲洙회장, “한글인터넷족보 수단 신청 적극 참여 기대”

### 吉洙회장, “참된 족보 만드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西情會 모임 甲洙(왼쪽 두번째)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吉洙회장

서원군과 종중 일가들을 중심으로 한 친목단체인 서정회(회장 吉洙)는 지난 9월 13일 오전 20여명의 회원들과 중앙종친회에서 甲洙회장, 星燮부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소재 은행나무집에서 모임을 갖고 당면한 종사에 관해 의견을 나누면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다졌다.

吉洙회장은 인사말에서 “배움의 즐거움과 우정의 소중함,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 하지 않을 수 있어야 수준 높은 인격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논어(論語)의 첫머리에 나오는 글을 소개하고, 서원군파의 참여문제로 일부 혼선이 있는데 대해 “분명히 말 하건데 우리는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편찬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잘못된 곳을 바로잡고 가짜는 가려내서 참된 족보를 만드는데 협조하자고 한 일이 있었으니 오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甲洙중앙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현재 5,800여명의 수단이 접수되었는데, 어제는 150여명이 모인 충북종친회 총회에 참석, ‘청주는 우리 청주한씨의 본향(本鄉)이니 수단신청에 100% 참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더니 모두가 기꺼이 참여를 다짐했다”고 밝히고 6교대동족보에 올라있는 일가들은 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에 수단금 없이 올라야 되지 않느냐는 栢根중정공파회장의 질의에 대해서는 “한자(漢字)만으로 기재된 6교대동족보를 그대로 「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한글로 번역해서 한자와 한글을 병기(併記)하기 때문에 번역비용이 많이 들어 27세 이후에 대해서는 수단금을 받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 이해하시고 서정회 회원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홍보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甲洙회장은 이어 ①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난곡교와 난곡리 진입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는 행정안전부, 충북도와 영동군 등 관계당국과 협의, 진행하고 있으며, ②기성전(기성회회장 楸泰) 개축공사도 3억원의 지원을 받아 완공되었으며 ③「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 편찬사업이 완결되는대로 현재 24억원의 청한장학기금을 35억원으로 확충하기 위해 11억원의 장학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족보(일명 譜牒)의 종류

- ▲대동보(大同譜):같은 시조아래 중시조 마다 각각 다른 본관(本貫)을 가지고 있는 씨족간에 종합 편찬된 족보이다. 즉 본관은 서로 다르지만 시조가 같은 여러 종족이 함께 통합해서 편찬한 보첩을 뜻한다.
- ▲족보(族譜):관향(貫鄉)을 단위로 하여 같은 씨족(氏族)의 세계(世系)를 수록한 보첩으로 한 가문의 역사를 표시하고 한 씨족의 계통도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보첩이다.
- ▲세보(世譜):두 개파 이상의 종파가 합보(合譜)로 편찬한 보첩이다.
- ▲파보(派譜):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어느 한 파(派)만의 계보와 사적(事蹟)을 기록하여 편찬한 보첩이다.
- ▲가승보(家乘譜):본인을 중심으로 시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직계존속(直系尊屬·자기의 윗대)과 비속(卑屬·자기의 아랫대)에 이르기까지 이름자와 사적(事蹟)을 기록한 것으로 보첩 편찬의 기본이 되는 문헌이다.
- ▲계보(系譜):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을 계통적으로 나타내는 도표로서 한 씨족 전체가 수록되었거나 어느 한 부분이 수록된 것이다.
- ▲가첩(家牒):편찬된 내용이나 표현이 아니라 집안에 소장되어 있는 모든 보첩을 말한다.
- ▲만성보(萬姓譜):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 줄기를 추려내어 집성(集成)한 책으로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한다. (족보상식에서)

# ‘2012만해축전’ ... ‘만해대상’ 도 시상

## 한용운 선사는 청주한문의 선각자



사진은 만해마을에 수립된 만해선사의 흉상

###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청주한문의 위대한 선각자 만해 한용운(萬海 韓龍雲 · 1879~1944선사

(禪師)의 생애와 사상을 기리는 ‘2012만해축전’ 지난 8월11일 입재식을 마친 후 12일의 ‘만해대상’ 시상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백담사 ‘만해마을’ 일

원에서 국내외 저명한 문인, 학자들과 수 많은 시민, 청소년들이 참여한 가운데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베풀어졌다.

충남 홍성에서 태어난 만해는 선사, 시인, 독립운동가로 일생을 조국 독립과 겨레사랑으로 일관했다. 20대 중반에 백담사로 출가, 승려가 된 후 한국불교의 개혁과 대중화를 주창한 「조선불교유신론」을 펴내는 한편 시·소설 등의 창작활동을 통해 사회 개혁과 정신개혁을 주도하면서 88편의 시를 모은 그 유명한 「님의 침묵」을 발표했으며, 3·1운동 때는 민족대표 33인의 한사람으로 참여해 독립운동가로 활약하다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으나 조국의 광복(1945년)을 보지 못하고 애석하게도 1년전인 1944년에 별세했다.

만해축전은 만해사상실천선양회, 강원도, 인제군, 조선일보사 공동주

최로 지난 1999년 백담사에서 시작된 후 2003년부터는 백담사 인근에 광활하게 마련된 만해마을에서 해마다 다양한 주제의 심포지엄, 백일장, 서예대전, 시인학교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로 거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로 16회를 맞는 ‘만해대상’은 세계 각국의 국가원수들과 노벨상 수상자와 저명인사들에게 시상될 만큼 국제적인 대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의 ‘만해대상’ 시상식에서는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과 캄보디아 평화운동가 아키 라씨가 평화대상을, 두봉(르네 뒤퐁) 전 천주교 안동교구장과 독일 쿠틀 그리블 아우크스부르크 시장, 인도의 오타니 몬슈 고신 우타라칸드주 불교부장관이 실천대상을, 쿠웨이트의 시인 수아드 알 사바와 문학평론가 김재홍 경희대 명예교수가 문예대상을 각각 수상했다.

## 「광복군 韓亨錫일가의 아리랑」 재조명

### 한국 최초의 오페라 ... 중국에서 높이 평가

#### KBS 1TV 광복절 특집방송

KBS 1TV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오전 10시55분부터 약 50분간 특별기획으로 「광복군 韓亨錫일가의 아리랑」을 방송, 그가 작곡한 한국 최초의 오페라 「아리랑」을 추적하는 한편 중국에서 수 많은 독립군 군가를 작곡하면서 독립운동을 한 亨錫일가의 음악세계를 재조명했으며, 부산MBC 라디오에서도 이날 오후 3시5분부터 특집방송을 내보냈다.

KBS 1TV에 의하면, 오페라 「아리랑」을 비롯 亨錫(1910년~1996년)일가의 독립군 군가 작곡활동은 그의 제자인 8·90대의 중국인 제자 음악교수들과 역사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는가 하면 2009년에는 시안(西安)에서 「韓亨錫 음악발표회」가 열리는 등 중국에서 높이 평가되고 널리 알려져 있으나 오히려 한국에서는 모르는 이들이 많으며 특히 청주한문에서도 그를 아는 일가들이 적어 안타깝다.

1940년 중국 시안의 실험극장에서 초연된 오페라 「아리랑」은 당시 중국 국민당의 장개석 총통과 부인 송미령 내외, 상해임시정부의 金九 주석을 비롯한 임정요인들도 관람했으며, 관객들의 열렬한 절찬속에 1945년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20여회에 걸쳐 공연했다고 한다. KBS 1TV 특집방송에서는 오페라 「아리랑」에서 피아노 반주를 한 93세의 왕하이텐 교수의 회고담도 들려주었다.

#### “한유한 어디 계십니까”

1997년 중국의 한 음악잡지에는 “한유한 어디 계십니까”라는 제목의 한 음악인을 찾는 글이 게재되었다. 한유한은 작곡할 때 사용했던 韓亨錫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한유한을 찾고 있던 사람은 중국 최고의 음악사학자인 중국 중앙음악학원의 량마오춘 교수였다. 그는 1940년대 음악잡지에 소개된 작곡가 한유한의 100여



젊은시절의 형석 일가

곡의 가곡과 군가의 음악성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찾았다고 한다.

“한유한 어디 계십니까”라는 량마오춘 교수의 글을 계기로 한유한이 바로 韓亨錫과 동일인라는 실체가 밝혀져 그 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한형석의 군가 작곡을 통한 독립운동 업적이 재조명을 받게 된 것이다.

亨錫일가는 1915년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부산 최초의 양의 사인 아버지 흥교(1885~1967)일가를 찾아 중국으로 건너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상하이(上海)의 신화예술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다.

1937년 중국 최초의 가극 「리나」를 비롯하여 「신형명군가」「출정행진곡」「전사의 노래」등 수많은 중국어 군가를 작곡했다. 1939년부터는 이범석 휘하의 독립군에 참여하여 40년에 가극 「아리랑」을 초연했으며, 43년에는 「압록강행진곡」「군기가」등을 수록한 최초의 독립군가집인 「광복군가집」1,2집을 발간하는 등 100여곡의 군가를 작곡했다. 그가 작곡한 「승기가」는 광복군의 국기제양식 때 의식음악으로 연주되기도 했다.

亨錫일가는 1945년 광복 후 고향인 부산으로 돌아와 아동극장을 경영하면서 중국어와 음악을 가르치는 등 사회운동을 했으며 부산대 중문과 교수로 재직했다. 부산 동래의 고향에는 현재 부인 강호정(91)씨와 장남 종수(51), 여동생 연석(93)일가가 살고 있다.

## 한순철일가, 런던올림픽서 은메달

### 한국복싱 16년만에 이룩한 쾌거



한순철(28 · 서울시청) 일가가 지난 8월 12일 오후 엑셀 런던 사우스 아레나에서 가진 런던올림픽 남자 복싱 라이트급(60kg) 결승전에서 우크라이나의 바실 로마첸코(24)에게 석패, 은메달을 차지했다. ‘아빠 복서’인 순철일가의 은메달 획득

은, 비록 금메달에는 실패했지만 지난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이승배 현 대표팀 감독이 은메달을 수상한 후 16년만에 이룩한 쾌거이다.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 무대라는 각오로 결승전에 입한 순철일가에게는 대학생 아내 임연아(22)씨와 지난 해 1월에 출생한 딸 도이(2)가 있어 ‘아빠 복서’로 불렸다. 순철일가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실질적인 가장(家長) 역할을 해왔다. 순철일가가 은메달을 수상한 후 어머니 이상녀씨는 “지금껏 그 힘든 훈련을 이겨낸 아들이 대견스럽다”고 칭찬했다.

## 이택 전 문간공파 회장 별세



한이택(전 문간공파회장)일가가 지난 8월 10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이택일가는 문정공파회장, 친목단체인 청문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종친회 종사에 크게 기여했다.

# 장헌공 저 신기비결 국역본 발간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에서 번역



신기비결 국역본

시조 하 18세인 장헌공(莊獻公·휘 孝純)이 함경도도순찰사 시절인 선조 36년 여름에 저술한 신기비결(神器秘訣)이 2011년 8월 25일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에서 국역본(國譯本·柳在城선생 번역)으로 발행되었으며, 2012년 7월 19일 장헌공파 종친회가 국방부로부터 국역본을 인수했다.

신기비결은, 화기의 화력과 실무를 알기 쉽게 수록한 책이다. 총통식(銃筒式)이라는 책이 있었으나 화포에 대한 장전과 화약 염초의 주입방법이 알기 쉽지 않아 장헌공께서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하면서 그 외에 태공병법(太公兵法) 21장과 손자병법(孫子兵法) 13장, 위료병법(尉繚兵法) 17장, 적계광병법(戚繼光兵法) 52장을 취하여 붙이고 진(鎭)과 보(堡)의 공격에 대비하고 장졸이 움직이는 진법을 상세하게 설명한 책으로 군사적 지혜와 부대

전술을 익힘으로서 군의 기(奇)와 정(正)의 깊은 지모(智謀)로 부대를 운용할 수 있게 만든 장수(將帥)의 필독(必讀)지침서(指針書)이다. 국역본이 발행됨으로써 당시의 화포에 대한 연구 자료가 많은 학자들에게 제공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오류(誤謬)수정

정신문화연구원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발간 할 당시 장헌공에 대한 기록을 오기(誤記)하여 공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으나 장헌공의 종손인 範九일가가 조선왕조실록과 여타 문집에서 자료를 발췌하여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반증(反證)을 하며 정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증보판을 발간 할 때에 오류 부분을 수정하였다.

이는 조상에 대한 대중적인 편견이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당한 예우를 받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나 이번 수정으로 장헌공의 진면목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가 2011년 12월 14일 발행한 한국 군사인물연구 조선(朝鮮)편I. 제3장 임진(壬辰), 정유재란(丁酉再亂)기의 군사인물 10인편에서 임진왜란 삼도체찰부사, 『신기비결』, 『진설』을 저술한 군사전략가로 평가하였다. 특히 장헌공은 이순신장군에게 판옥선 30여척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큰 공을 세웠고 얼마 전 이순신

장군의 편지가 공개되면서 장헌공에게 군수물자의 원활한 공급을 부탁한 것으로 풀이되어 장헌공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증거가 되었다. 후일에 좌의정으로서 국정운영에서 중용의도를 취한 부분이 잘못 인식되어 오류가 났던 것을 수정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청주한씨 선대의 기록이 오기된 부분을 찾아내어 수정함으로써 조상에 대한 위명을 되찾아 후손들에게 명확하게 전하여야 한다.

### 불천위 조사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전 통문화유산의 지정을 앞두고 불천위중 신주를 모시고 있으며, 기신제를 지내고 있는 문중을 2009년부터 조사하였으나 한시 문중에 조사된 분은 문양공(諱 繼美)과 문정공(諱 繼禧), 충정공(諱 應寅) 등 세분밖에 조사가 안 되었고 누락된 분들이 많아 경기도 향토문화연구소장인 동역(31世)일가가 금년봄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여 추가 조사를 하고 있다. 세분 외에 문간공(諱 尙敬), 양철공(諱 確), 공간공(諱 斯文), 청원위(諱 景緣)가 조사를 마쳤으며, 질경공(諱 致亨), 안양공(諱 終孫), 서평군(諱 叔昌), 문익공(諱 濬謙), 위성공(諱 天斗)은 기신제일만 확인되어 조사 중에 있다. 그러므로 이외에 해당되는 문중은 오는 10월 말일 이내에 다음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17-704-0004 (東億) 02-720-6370~ (중앙종친회 상무 鍾仁)

# 韓民求고문, 미래국방포럼 의장 취임 합참의장 등을 역임한 예비역 육군대장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며 예비역 육군대장인 韓民求(사진) 본회 고문이 지난 8월 27일 오후 국회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미래국방포럼」(Next Defense Forum) 창립총회에서 초대 의장으로 추대되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중앙종친회에서 申洙희장이 축하화환을 보냈으며 駮錫「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소위원장, 백준부회장, 基虎도유사, 星燮부회장 등 임원들이 참석, 民求고문의 의장 취임을 축하했다.

「미래국방포럼」은 국민과 국방의 쌍방 소통을 선도하며 국방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목표아래 ①국민 친화적 국방을 위한 인프라 제공 ②방산업체 협력지원 ③입법활동 및 정책지원 등을 핵심지표 및 중점사업으로 하고있다.

民求고문은 의장 취임인사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고 있다”고 말하고 “세계로 뻗어 나가는 우리의 경제·문화와 걸맞은 선진 국방역량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韓東殷일가, 국무총리 표창 한국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



표창받는 東殷(오른쪽)일가

비스코(BISCO)인터내셔널(주) 고문인 韓東殷(29세·예빈윤공파)일가는 지난 9월 3일 제 16회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지난 30여년간 인적자원개발 및 경영시스템 전문가로서 인적자원개발시스템 개발 및 관련정책자문, 심의, 시험위원의 전문활동과 기업·공공기관의 조직역량 개발을 위한 강의 및 관련논문·저술활동을 통해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 청한산악회 8월 정기산행



청한산악회 8월의 정기산행은 계절여건을 고려 수도권 인근 교통이 편리한 용문산으로 30명의 회원과 함께 하였다. 양평군 용문면과 옥천면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용문산은 중원산, 백운봉, 도일봉 등이 연봉을 이루어 광주산맥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며, 산세가 웅장하고 계곡이 깊으며 폭포와 기암괴석이 어울려 경치가 수려하여 예로부터 경기의 금강이라고도 불리며 천연고찰 용문사와 천연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된 동양최대의 은행나무가 유명한 곳이다. (9월은 휴행합니다)

# 진도군종친회 운영위원 하계수련회



전남 진도군종친회(회장 용구)는 지난 8월 6일 진도군 조도면 창유리에서 운영위원 하계수련회를 가지고 화합을 다지는 한편 ①진도군종친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며 ②중앙회의「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하며 ③11월 14일(음력 10월 1일)의 시조 시향에 많은 일가들이 참배하도록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수련회에는 용구회장(33세·감사공파), 봉철사무국장(34세), 병림(33세), 금옥고문(34세)을 비롯하여 운영위원 등 약 60명이 참여했다.

## 무농회 제384차 월례회의 청주시내 무농정에서 개최



종친회내 친목단체인 무농회(務農會·회장 奎同)는 지난 8월 18일 오후 청주시 방서동 소재 무농정(務農亭)에서 45명의 회원들과 현지에서 韋堯중북종친회장 등 6명의 일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84차 월례회 겸 제32차 연례회를 개최, 당면과제 등을 논의한 후 시조묘를 참배, 고유제를 올렸다. 모임에서는 甲洙회장을 대신하여 중앙회 星燮부회장이 인사를 했으며 駿錫(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소위원장)과 基虎(도유사도) 인사를 했다. 고유제의 초헌관에는 규동, 아헌관에는 상철, 종헌관에는 승욱, 집례

에는 동춘, 축에는 일환일가가 분방되었다. 奎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조 부군께서 출사(出仕)의 계기가 된 용개 들 영농을 감농(監農)하시던 무농정을 기리고 무농계의 단체명 연원과 본분에 걸맞는 위상을 높이기 위해 무농정에서 월례회를 갖게 되었다”고 밝히고 “특히 이번 월례회는 청주시 지방문화재과 羅庚峻(문학박사) 학예연구사로부터 청주시비와 충북도비로 시조 제단비에 비각을 건립하기로 했다는 청주시의 계획을 확인하는 중차대한 행사였다”고 말했다.

## 경기도종친회 임원들 제3군단 위문방문



경기도종친회(회장 光傳) 운영위원회 임원 30명은 지난 8월18일 청주한문을 빛낸 韓東宙일가의 중장 승진과 군단장 취임을 축하하고 격려하고자 제3군단을 방문, 위문금과 그림을 전달했다. 군단장 東宙일가는 환영인사를 통해 “종친회에서 위문방문에 주셔서 감사하며 청주한문에 태어난 자부심을 갖고 국가와 청주한문을 위해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光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韓東宙일가의 중장 승진과 군단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위문방문을

허락하고 적극 추진해 주신데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일행은 부대의 홍보영상을 관람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을지전망대와 제4땅굴을 견학했다. 제3군단 방문에는 영택고문, 박치순씨, 김춘옥원장, 동역자문위원, 이덕상무이사, 창영사업이사, 기철조직이사, 경수이사, 운전이사, 승서이사, 상훈이사, 갑전이사, 병희이사, 정수, 응덕, 해수, 동열, 상완, 흥년, 정정숙, 조명자, 고은진, 임은희, 전옥화, 이수진, 정성욱, 연용숙씨 등이 함께 했다.

### 개인정보비 (7~8월)

단위 : 천원

이름	금액
정기(서울 서초구)	60
돈희(서울 서초구)	50
창민(전남 나주시)	50
근택(경기 남양주시)	40
재수(경기 안양시)	40
갑준(서울 성북구)	30
광희(경기 고양시)	30
민교(충남 천안시)	30
상안(경북 구미시)	30
상준(경기 군포시)	30
선수(서울 관악구)	30
종천(경기 평택시)	30
종태(서울 종로구)	30
천우 이사(전북 김제시)	30
호준(경기 남양주시)	30
경남(부산 서구)	20
기운(강원 강릉시)	20
동호(서울 성북구)	20
상백(서울 동대문구)	20
상용(전남 순천시)	20
승언(서울 구로구)	20
승우(부산 부산진구)	20
양섭(경기 구리시)	20
운석(충남 서천군)	20
원렬(전북 완주군)	20
익섭 이사(서울 강남구)	20
정우(충남 연기군)	20

이름	금액
희수(서울 동작구)	20
기섭(서울 동대문구)	10
기중(서울 송파구)	10
태수(서울 관악구)	1
<b>합 계</b>	<b>821</b>

### 장학기금납부 내역 (7~8월)

단위 : 천원

고유번호	이름	금액	누계
808	하다리종친회	500	3,800
1799	돈희(서울 서초구)	200	500
1970	철수(대전 동구)	200	200
1971	수교(충남 계룡시)	100	100
1733	정기(서울 서초구)	60	120
1788	현택(서울 노원구)	50	1,230
884	정수(광주 동구)	50	210
834	기영(강원 강릉시)	20	500
309	희수(서울 동작구)	20	330
1969	재명(경기 남양주시)	10	10
1951	기택	5	20
1950	창엽	5	16
1955	배유자	5	15
1956	기원	5	15
474	태수(서울 관악구)	1	183
<b>합 계</b>		<b>1,231</b>	

### 운영회비 (7~8월)

단위 : 천원

이름	금액
희천 고문(삼재 상임고문)	1,000
준석 부회장(문간공파회장)	1,000
동석 부회장(삼재관리위원장)	1,000
경식 부회장(순천시회장)	1,000
상욱 부회장(충남도회장)	500
태섭 부회장(부산시회장)	300
만희 이사(서울 금천구)	300
기호 고문(도유사)	200
상기 자문위원(전 인천시회장)	200
익수 자문위원(경기 고양시)	200
병중 운영위원(삼재 고문)	200
광열 운영위원(강화군회장)	200
강석 이사(삼재 유사)	100
기홍 이사(삼재 유사)	100
동권 이사(삼재 부회장)	100
문수 이사(삼재 유사)	100
상태 이사(삼재 상임 부회장)	100
승주 이사(삼재 총무)	100
연수 이사(삼재 유사)	100
영욱 이사(삼재 부회장)	100
용암 이사(삼재 부회장)	100
재운 이사(삼재 감사)	100
철현 이사(삼재 도유사)	100
철호 이사(삼재 부회장)	100

이름	금액
기달 이사(서울 강북구)	100
영학 이사(하다리종친회)	100
영호 이사(하다리종친회)	100
용희 이사(서울 성북구)	100
익섭 이사(서울 강남구)	100
정행 이사(인천 계양구)	100
천우 이사(전북 김제시)	100
태동 이사(서울 마포구)	100
<b>합 계</b>	<b>8,100</b>

### 단체정보비 (7~8월)

단위 : 천원

이름	금액
하다리종친회	200
목포시종친회	100
판서공증중(상영)	60
<b>합 계</b>	<b>360</b>

### 일반찬조현성금 (7~8월)

단위 : 천원

이름	금액
하다리종친회	200
<b>합 계</b>	<b>200</b>

# 시조 제단비에 비각 건립된다

## 청주시와 충북도 예산으로



시조 제단비-충북 유형문화재 제169호

지난 1990년 12월 14일 충북유형문화재 제169호로 지정된 청주시 상당구 운동동 369-6 소재 시조묘 실호(失護)시의 제단비(祭壇碑)가 청주시와 충북도의 예산으로 비각(碑閣)이 세워지게 되어 명실상부한 문화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청주시 지역문화재과 羅庚峻학예연구사(문학박사)와 신형수계장은 지난 8월18일 오후 청주시 방서동 소재 무농정(務農亭)에서 개최된 무농회(회장 구동) 제384차 월례회 겸 32차 연례회에 참석,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청주시와 충북도 예산으로 청주한씨 시조묘 실호시의 제단비에 비각을 건립하기로 했으며, LH공사(토지주택공사)에서 사유지인 이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는대로 공사를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와같은 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청주한씨중앙총친회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단비는 시조묘소가 실호되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1605년 구암(久庵·휘 百謙)이 청주목사(牧使)로 부임하면서 제단비를 세우고 1768년 시조묘소를 다시 봉심(奉審)할 때까지 163년 동안 사항을 모셨으며, 그의 동생인 당시 이조참판

浚謙이 시조의 내력을 상세히 서술하여 후손들이 제사 때마다 읽고 알 수 있도록 한문으로 비문을 지었다. 제단비는 직사각형 비신(碑身) 위에 한 개의 돌로 팔작지붕 모양으로 깎아 만든 옥개(屋蓋)를 얹어 놓은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비좌(碑座)는 흙속에 묻혀 훼손(毀失)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제단비는 오랫동안의 풍화(風化)로 비문의 판독이 어려울 정도로 황량(荒涼)하게 방치되어 왔으며 바로 옆에 한글, 한문, 영어, 일본어 등 4개국어로 간단한 내력을 소개한 「청주한씨시조제단비」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을 뿐 그동안 관리가 소홀하여 주변도 황폐화되어 있어 유형문화재로서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중앙총친회 甲洙회장과 陽命상임고문을 비롯한 백준, 駿錫, 成龍, 星燮, 哲永부회장 등 시조탄생유지 성역화사업추진위원회 집행부회장단은 2010년 9월 12일 一煥 제전부회장의 안내를 받아 황량하게 방치되어온 제단비(祭壇碑) 현장을 답사한 후 1529자의 한문 원문을 2880자의 한글로 번역한 비문을 각자한 높이 2m75cm의 모형비를 제작, 2010년 11월 6일 경인년 시조시향일에 시조묘역에 수립(豎立)했다.

# “태풍피해 일가분들, 희망 갖고 재난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 甲洙중앙회장 위로·격려 담화

지난 8월과 9월 중순에 걸쳐 우리나라를 잇달아 강습한 대형 태풍 「볼라벤」과 「텐빈」, 「산바」는, 전국에 걸쳐 엄청난 재난(災難)과 상흔(傷痕)을 남기면서 수십명의 인명피해와 가옥 침수, 농작물과 양식어장까지 휩쓸어 수 많은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전국의 많은 우리 일가들 중에서도 이 와중(渦中)에 불의(不意)의 재난을 당하여 실의(失意)에 빠져있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일가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희망을 갖고 굳건하게 재기하기를 기원합니다.

인간사회에서는 수 없이 많은 우여곡절이 반복되면서 작든 크든 갖가지 재난의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재난은 주로 외부에서 옵니다만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힘은 내부에 있으며, 그것은 바로 희망과 의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미 고대 기원전의 선현(先賢)들조차 “역경은 희망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고 갈파(喝破)한 바 있습니다. 힘이 들어도 목표가 뚜렷하고 희



甲洙 회장

망을 가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능력과 지혜를 발휘하여 역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雲外蒼天=어두운 구름 밖에는 밝고 푸른 하늘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일가들께서도 도움의 손길을 뻗어 상부상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수확된 곡식과 과일도 다례를 지낸 후 성묘하여 선조의 음덕에 감사하는 날, 한가위(추석)를 곧 맞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 가족들과 함께 풍요롭고 행복이 넘치는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운을 빕니다.

# 대구·경북총친회 「淸韓閣」 참배 「인터넷족보」수단신청 적극 참여키로



## 현지에서 임원회의 개최

대구·경북총친회(회장 희섭)는 지난 8월 25일 오전 40명의 임원들이 충북 영동군황간면 난곡리 소재 시조탄생유지인 「淸韓閣」을 참배한 다음 현지에서 임원회의를 개최, 당면한 종사 운영에 관해 협의하면서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수단신청에 적극 참여하고 홍보하기로 뜻을 모았다.

「淸韓閣」참배에 이어 육영수여사 생가 방문, 대청댐 및 청남대관광까지 한 대구·경북총친회는 이날 임

원회의에서 ①올해 11월 14일(음력 10월 1일)에 봉행되는 임진년 시조시향에 많은 일가들이 참배하도록 적극 노력하며 ②지난해까지 청한회관 건립을 마무리 했으므로 앞으로는 내실을 다지고 화합과 단합으로 총친회를 선진화하는데 지혜를 모으기로 했으며 ③임원회의를 겸한 「淸韓閣」참배와 관광으로 임원들간의 화합과 단합이 한층 더 돈독해졌음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조상을 위해, 일가들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 「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편찬 재개

- ① 2012년 6월~11월 말까지 수단 접수를 마감
- ② 2012년 12월~2013년 1월 말까지 입력, 개통
- ③ 완결 후 신청받아 전질 및 파보책 발간계획

-명문족보에 올라야 명문후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인터넷족보는 앞서가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우리들의 후손들은 한글인터넷족보를 원합니다-  
 -「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가 내년초 완결됩니다-

- 지난 2010년 8월 제1단계로 수단접수를 마감하고 미완(未完)상태로 개통된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의 완결을 목표로 편찬사업을 재개하였습니다.
- 제1단계 편찬사업 때 누락된 일가들의 수단 접수를 2012년 11월 말까지 마감한 후,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 말까지 입력작업을 끝내고 개통하여 한글과 한문을 병기한 「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를 완결할 것이며, 이를 근거로 2013년 상반기 중에 일가들의 신청을 받아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 전질(全帙) 또는 파보(派譜)를 보책(譜冊)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2012년 11월말 마감 때까지 수단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제7교한글인터넷대동족보」에서 누락되며, 2013년에 들어 희망하는 일가들에 한해 발간 예정인 「제7교청주한씨대동족보」보책(譜冊)에도 등재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일가들께서는 빠짐없이 조속히 수단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수단을 신청한 일가들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월말까지 입력을 끝내고 바로 개통됨으로 일제히 검색 및 교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수단비는 1인당 12,000원 입니다.
- 50인 이상 신청하는 종파에 대해서는 30% 감액됩니다.
- 서원군파 및 문간공파의 CD파보 입보자의 수단금은 추가비용부담을 감안하여 3분의 2를 할인하여 4,000원으로 한다.
- 종파회장은 유사(有司)가 되며, 입보(入譜), 교정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 사진도 입력됩니다. 입력수수료는 1매당 12,000원 입니다.
  - 인터넷족보'에 조상의 사진, 가족사진, 가족들의 인물사진, 가문과 관련있는 유적사진 등 본인들이 원하는 어떠한 사진도 입력, 자손대대로 볼 수 있습니다.
  - 사진은 10cmX15cm=4인치X6인치로 어른 손바닥 크기이며, 족보 내용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족보' 수단지 기재 요령은 중앙중친회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 '인터넷족보' 찾아가기 도움말  
 중앙중친회 '홈페이지' 찾아가기  
 '인터넷' 주소창에서 **청주한씨중앙중친회** 또는 **www.cheongjuhan.net** 중 어느 하나를 입력하고 **엔터키** (Enter Key)를 누르면 청주한씨중앙중친회 **홈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러 항목중 **'인터넷족보'**라는 항목을 **'클릭'**하면 '인터넷족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잘 되지 않으면 중앙중친회로 전화 (02-720-6370) 주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족보' 수단지 기재 요령
  - (1) 연도 표시  
 서기(西紀)로 년, 월, 일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 연도를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6교대동보'에 실린 간지(干支)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예) 1980년 2월 15일 생, 1980년 2월 15일 졸.
  - (2) 학력·경력 및 상훈 기재방법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본인이 입력하기를 원하는 주요학력·경력 및 상훈(賞勳) 종류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3) 묘 기재방법  
 예) 묘(墓) :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내곡리 산3번지 뒷산 선영(先塋)을좌(乙坐) 합편 또는 쌍분(雙墳)
  - (4) 부인 기재방법  
 예) 배(配) 김혜영(金惠英) 김해인(金海人) 부친 英洙 생, 졸, 학력, 경력, 묘 등 기재방법은 남편과 동일합니다.

- (5) 부(夫) 기재방법 (시집을 간 딸 이름은 그대로 둔다)  
 예) 딸 이름 옆에 부(夫) 김태식(金泰植) 김해인(金海人·사위의 생, 졸, 경력 사항 등은 기재하지 않습니다)으로 기재하며, 아들과 딸(외손자와 외손녀)이 있어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 (6) 자(字), 호(號) 기재방법 (자와 호가 있는 경우)  
 예) 자 영호(英鎬), 호 무농(無農)으로 기재합니다.
  - (7) 사진 제출 방법  
 누구 사진인지 구분하기 위해 사진 뒷면에 사진의 주인공 이름과 아버지 이름, 파(派), 세(世)를 기재하고, 사진 설명이 필요한 경우 20자 이내로 간단히 기재합니다.  
 ※선조의 유적지, 묘소, 재실, 교지, 훈장, 표창장, 개인 및 가족사진 등도 제출할 수 있으며, 묘소와 재실은 주소, 훈장은 훈장명을 기재하십시오.
  - (8) 수단용지는 홈페이지(www.cheongjuhan.net) 또는 daum, naver 등 포털 사이트의 '통합검색란'에서 '청주한씨중앙중친회'를 입력하여 '청주한씨' 홈페이지가 열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인터넷족보' 주요 기능과 특징
- (1) 직계·촌수검색이 가능하며, 이름 입력 즉시 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 (2) 선조님의 업적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3) 국·한문을 혼용, 한자를 모르는 젊은 후손들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4) 청주한씨 인구, 남녀, 이름, 파별 인구수 등 각종 통계를 찾아 볼 수 있습니다.
  - (5) 선조의 모습, 유적, 묘소, 재실, 교지, 상장, 부부, 가족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 인터넷족보는 단점보다 장점 많다 CD족보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

- ①인터넷족보는 CD족보에 비해 젊은 세대 후손들의 선호(選好)와 이용도가 압도적이다. 인터넷이란 사이버공간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환되고 있어 인터넷족보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인 큰 흐름이다.
- ②인터넷족보는 CD족보에 비해 장점이 많고 단점은 거의 없으며, CD족보는 인터넷족보에 비해 단점이 많고 장점은 거의 없다.
- ③인터넷족보는 국내외 어느곳에서나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CD족보는 CD가 있어야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므로 가지고 다녀야하는 불편이 있다.
- ④인터넷족보는 CD가 없어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후손들이 족보를 열람할 수 있다. 여행자들도 CD없이 세계 어느 곳에서라도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만 있으면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나, CD족보는 CD가 없으면 열람이 안되고, 여행자들도 CD를 갖고 다녀야만 족보를 열람할 수 있는 불편함이 있다.
- ⑤인터넷족보는 잘못된 내용, 누락된 내용의 수정이 쉬우나, CD족보는 일단 반질(鑄成)된 후에는 잘못된 내용, 누락된 내용의 수정이 어렵다.
- ⑥인터넷족보는 출생, 사망, 행적 변경에 따른 수단(收單)을 수시로 접수받아 족보에 등재할 수 있으나, CD족보의 경우 새로운 CD족보를 현실적으로 제작하기가 어려워, 보통 20~30년 주기로 제작되는 다음 족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⑦인터넷족보는 제작기간이 짧다. 수단 접수 후 짧게는 몇일 이내에 자기 족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각 중친회 사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구축하나, CD족보는 제작기간이 길어 수단 접수 후 최소 1~4년 정도는 기다려야 족보를 볼 수 있다.
- ⑧인터넷족보는 파손, 분실의 염려가 없으나, 전자족보는 파손, 분실의 염려가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 ⑨인터넷족보는 입력된 데이터를 언제든지 프린터로 출력하여 새로운 보책(譜冊)을 만들 수 있으나, CD족보의 경우 불가능하다.
- ⑩인터넷족보는 제작비용이 CD족보나 보책보다 저렴하다. CD족보는 제작하여 판매하면 일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제작비가 비싸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수단비를 내는 구성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더 큰 단점을 갖고 있다.
- ⑪컴퓨터의 발달에 따라 CD를 읽을 수 있는 기계장치가 향후 점차적으로 쇠퇴해 가는 추세이며, 따라서 CD를 이용하는 CD족보도 사라지고 인터넷족보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5.25" 디스켓이 완전히 없어졌고, 3.5" 디스켓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